

SNK, 대표 IP <KOF>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콜라보 성료

- SNK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넷마블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와 손잡아
- 한국, 일본 빌드 콜라보(9/24 ~10/8)에 이어 최근 진행한 글로벌 빌드 콜라보(10/26 ~ 11/3)도 성황리에 마쳐



SNK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와 콜라보 이미지(1)

SNK인터랙티브(대표 전세환)가 자사 히트작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이하 <KOF '98)>>과 넷마블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와의 콜라보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와의 콜라보 이벤트는 한국과 일본에서 지난달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최근 글로벌 지역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성황리에 종료했다. 해당 콜라보 기간에는 SNK의 대표 캐릭터인 '시라누이 마이', '아사미야 아테나', '쿠사나기 쿄'와 '오메가 루갈' 4종의 콜라보 영웅을 추가했다.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는 원작자 스즈키 나카바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초대형 모바일 RPG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일곱 개의 대죄>의 주인공이 되어 원작 세계를 탐험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처 방식의 RPG로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화려한 필살기 연출이 특징이다.

또한 콜라보 이벤트 동안 신규 콘텐츠 '7대죄 X KOF '98 더 킹 오브 파이터즈 ~ 브리타니아'도 선보였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SNK의 <KOF> 컨셉트를 활용해 3대 3팀 배틀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게임 유저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SNK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와 콜라보 이미지(2)

이에 SNK 전세환 대표는 "지난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에 이어 또 한번 국내 대형 게임 회사인 넷마블에 당사의 대표 IP를 조합해 선보인 것으로 유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올해 국내외 유수의 게임 회사들로부터 당사의 KOF 캐릭터 및 IP에 대한 제휴 요청이 쇄도했지만 예고없이 찾아온 코로나 전염병 여파로 계약 체결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내년에 중국의 최대 게임사를 통해 선보일 출시 예정작을 비롯해 IP 계약 체결을 앞둔 건들이 준비해 있어 꾸준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KOF>는 SNK의 대표적인 격투게임 IP로 아케이드 게임 뿐만 아니라 다년간 발전해 온 PS, XBOX 플랫폼에도 성공적으로 발매했으며, 이후 STEAM 등 PC 플랫폼에도 상륙해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애니메이션 'KOF: 데스티니'를 방영한 바 있는데, 당시 티저 조회수만 해도 수억 회에 달했다. 또한, SNK는 최근 중국의 대형 영화 제작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2022년에 전세계 동시 개봉 목표를 두고 'KOF' 관련 3D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SNK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鈴木央・講談社 / 「七つの大罪 戒めの復活」製作委員会・MBS

© 鈴木央・講談社 / 「劇場版 七つの大罪」製作委員会

© 鈴木央・講談社 / 「七つの大罪 神々の逆鱗」製作委員会・テレビ東京

© Netmarble Corp. & Netmarble Fun Inc. All Rights Reserved.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